

【특 집】

국경분쟁, 영토문제와 보도 미디어

—아사히(朝日)신문사 후지(富士)창고 자료의 ‘몽골 관련 사진’—*

貴志俊彦**

┌ 차 례 ─┐

- I. 서론: 아사히신문사 후지창고 자료란 무엇인가?
- II. ‘몽골 관련 사진’을 정의한다
- III. 사진 출처를 탐색한다
- IV. 시공간 축으로 사진을 파악한다
- V. 주요 역사적 토픽을 밝힌다
- VI. 결론: 검열 문제와 관련하여

┌ 국문초록 ─┐

이 논문은 1930~40년대의 일본 대륙정책과 대(對)몽골관 관련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아사히(朝日)신문』(1879년 창간) 오사카(大阪) 본사가 소장한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의 스톡 포토(Stock Photo), 이른바 ‘후지(富士)창고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는 사진 이미지와 함께 뒷면에 기재된 데이터 항목을 참조하여 7만여 점의 후지창고 자료에서 ‘몽골 관련 사진’으로 정의할 수 있는 사진을 추출하여 분석했다.

‘몽골 관련 사진’ 중 특히 수가 많았던 것은 러허사건을 필두로 차하르작

* 본고는 2017년 12월 2일 도쿄의 세조(成城)대학에서 개최된 ‘제27회 근현대 동북아 지역 역사 연구회 연구회대회’에서의 강연 내용을 기초로 했다. 이 강연은 나카미 다테오(中見立夫) 교수의 퇴임을 축하하기 위해 열린 것이었다. 이번 원고의 집필에는 강조하는 논점과 구성을 바꾼 것 외에 새롭게 데이터를 42점 보충하고 4-(3)-①을 추가하는 등 전면적으로 변경했다.

** 교토(京都)대학 동남아시아지역연구 연구소 교수.

*** 번역: 안지나 (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전, 노몬한사건의 3개의 사건에 관련된 사진이었다. 이러한 자료를 총체적으로 보자면, 풍속과 생활보다 분쟁이나 사건 관련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의 독자에게 분쟁과 연관지어 ‘몽골’을 시각화한 것이다. 아사히신문사가 ‘몽골’에 드러낸 지정학적 이해는 어디까지나 소련, 몽골인민공화국, 중화민국과의 국경분쟁, 국토문제 등의 초점으로서의 공간이었다.

주제어: 몽골, 아사히신문, 후지창고 자료, 러허사건, 보도사진

I. 서론: 아사히신문사 후지창고 자료란 무엇인가?

『아사히(朝日)신문』(창간 1879년)은 1930~40년대의 일본 대륙정책과 대(對)몽골관 관련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¹⁾ 그 보도와 홍보는 신문뿐 아니라, 잡지, 사진잡지, 사진집 간행, 기록 영상 상영, 강연회 실시, 전시회·박람회·스포츠 대회 개최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졌다.

본고는 아사히신문 오사카(大阪) 본사가 소장하고 있는 전전(戰前,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스톡 포토(Stock Photo), 이른바 ‘후지(富士)창고 자료’를 검증 소재로 삼았다.²⁾ 이 자료들은 약 7만여 점의 인화사진과 소수의 네거티브 필름으로 구성되어 있다.³⁾ 사진의 피사체는 대부분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1) 『아사히신문』은 1879년 1월에 오사카에서 창간되었다. 1888년 7월에 『도쿄아사히신문』의 발행이 시작되자, 그 다음 해 1월에 오사카 발행 신문의 제명을 『오사카아사히신문』으로 고쳤다. 1940년 9월, 신문 통제가 진행되는 가운데 각사 발행의 제목을 『아사히신문』으로 통일하고, 오사카, 도쿄, 나고야, 규슈의 4본사 체제가 시행되어 전후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외지(外地)판으로서의 『만주판』은 1933년 11월 15일에 『대만판』과 같은 시기에 오사카 아사히신문 본사에서 발행이 시작되었지만, 1935년 2월부터 개편 신설된 규슈 지사에 발행 업무가 이관되었다. 그리고 『만주판』은 1945년 3월 정간된다.

2) ‘후지창고 자료’의 유래는 나가이 야스지(永井靖二), 『아사히신문의 비장사진 ‘후지창고 자료’란(朝日新聞の秘藏寫眞『富士倉庫資料』とは)』(2009, 『朝日新聞の秘藏寫眞が語る戦争』, 東京: 朝日新聞出版) 참조.

3) 후지창고 자료에 관한 필자의 연구성과는 ①논문: 『『朝日新聞富士倉庫資料』與中日戰爭照片審査問題』(吳偉明編, 『在日本尋找中國—現代性及身份認同的中日互同』(2013, 香港: 香港中文大學出版社). ②구두발표(예정): 『戰時下的“報導照片”和資訊網—朝日新聞社與台灣的關係—』(2018

지역에 관한 것이지만, 국제 정세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사진도 적으나마 포함된다. 사진의 뒷면에는 ‘아이템 번호’, ‘분류’, ‘사진 제목’, ‘뒷면 설명’, ‘촬영 날짜’, ‘촬영자’, ‘입수 기관’, ‘입수일’ 등이 필기 또는 스탬프에 기재되어 있다. 본고는 사진 화상과 함께 이러한 뒷면의 데이터 항목을 참조하여 우선 7만여 점의 후지창고 자료에서 ‘몽골 관련 사진’으로 정의할 수 있는 사진을 추출하여 분석하기로 하겠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듯이, 후지창고 자료 자체는 아사히신문 오사카 본사가 소장하고 있어 일반 자료관처럼 이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2009년에 아사히신문사가 유료 공개한 ‘아사히신문 역사사진 아카이브(朝日新聞歴史寫真アーカイブ, アジア・戦前戦中編)⁴⁾와 이 아카이브 구축사업 과정에서 작성된 모든 데이터의 전자 복사판, 통칭 ‘섬네일판’(1세트 72권, 일본 국내에 15세트), 그리고 유마니 서점(ゆまに書房)이나 일본도서센터(日本図書センター)가 복각(축인)한 아사히신문(외지판 포함) 등 2차 세계대전 이전 아사히신문의 ‘보도사진’을 조사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갖춰졌다. 최근에 드디어 이러한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⁵⁾

II. ‘몽골 관련 사진’을 정의한다

아사히신문이 의도한 ‘몽골’ 개념을 검증하기 위해서라고 하나, 7만 점이라는 방대한 양의 사진에서 ‘몽골 관련 사진’을 추출하는 것은 20세기 전반

年 12月 6日, 『戰爭下の城市』國際學術研討會, 台灣: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가 있다.

4) 전후 아사히신문사에서 ‘후지창고 자료’가 ‘발견’된 것은 2006년이였다. 창간 130주년이 되는 2009년 1월에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아사히신문사는 15명의 전문가와 함께 ‘후지창고 자료’의 일부 데이터베이스화에 착수했다. 2009년 1월에 아사히신문기사 데이터베이스 ‘기쿠조(聞藏(菊藏)) II 비주얼’ 옵션 콘텐츠 ‘아사히신문 역사사진 아카이브(아시아·전전전중편)’로 7만여 장의 사진 중 역사 연구자가 선정한 약 1만 점을 유료로 공개하고 있다.

5) 후지창고 자료 중 동남아시아 관계 사진 목록이 공개되어 있다(早瀬晋三·白石昌也編, 『朝日新聞大阪本社所藏「富士倉庫資料」(寫真)東南アジア關係一覽』(研究資料シリーズNo.6), 2017.3, 東京: 早稲田大學アジア太平洋研究センター). 동아시아 관계 목록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의 변화, 성현(省縣)제나 맹기(盟旗)제 등 행정구역의 변경, 국경 분쟁의 영향 등으로 민족 개념을 초월한 요소가 뒤섞이기도 하여 예상 이상으로 어려운 작업이었다. 따라서 먼저 ‘몽골 관련 사진’을 정의하는 지표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첫 단계로서, 사진의 뒷면에 적색·청색·흑색으로 기록된 ‘분류’를 보여주는 스탬프나 수기 메모에 주목하기로 했다. 이러한 ‘분류’를 정리하면 다음의 세 가지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 A-1 ‘몽고’, ‘몽고인’, ‘몽고 풍속’, ‘몽고 산업’, ‘몽고 군대’, ‘몽고 방목’, ‘몽고의 경마’, ‘몽고 씨름’ 등 민족 명칭을 붙인 것
- A-2 ‘내몽고’, ‘외몽고’ 등의 광역적인 지역 개념, ‘수이위안(綏遠)’, ‘차하르(察哈爾)’, ‘러허(熱河)’ 등의 성(省)명, ‘러허’, ‘바오터우(包頭)’, ‘장자커우(張家口)’ 같은 도시 이름 등 지역 명칭을 의미하는 것.
- A-3 ‘몽강(蒙疆)국경사건’, ‘노몬한사건’, ‘할하강사건’, ‘쇼와(昭和)8년 러히토벌’, ‘덕왕(德王) 방일’ 등 ‘몽골’ 관련 사건의 명칭이 붙은 것.

이 자료들을 서로 참조하여 후지참고 자료의 ‘몽골 관련 사진’을 추출하기 위해 우선 엑셀 파일로 배서(背書) 데이터를 정리하기로 했다(표1). 데이터 입력 과정에서 ‘몽골 관련 사진’이 포괄하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세 정치 공간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 B-1 만주국의 몽골인 거주 지역(1932년 3월 건국, 33년 3월 리허성 편입)
- B-2 수이위안성, 차하르성, 닝샤(寧夏)성 일부 등 1937년 11월 성립한 몽강연합위원회(39년 9월 몽고연합자치정부, 41년에 몽고자치방(蒙古自治邦)정부로 개편)의 점령 지역
- B-3 몽골인민공화국, 투바인민공화국, 소련 일부 지역

이렇게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아사히신문사는 광범위한 ‘몽골’ 지역을 대상으로 ‘보도사진’을 촬영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A-1~A3, B-1~B-3을 잠정적인 지표로 후지참고 자료에서 사진들을 추출한 결과,

88.3%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몽골 관련 사진’은 본고의 제목대로, 국경 분쟁·국토문제와 깊이 연관된 특징적인 사진이라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이 사진들에 기초하여 검증을 진행한다.

Ⅲ. 사진 출처를 탐색한다

1. 배포 사진과 구입 사진

우선 아사히신문이 ‘몽골’에 특파원을 파견하기까지 많이 사용된 스톡 사진을 살펴보자. ‘몽골 관련 사진’ 중에는 만주국 국무원 총무청 정보처가 제공한 사진 15점, 일본 육군성이 대여한 사진 12점이 포함되어 있다. 전자는 모두 러허사건 관련, 후자는 모두 노몬한사건 관련 사진이다. 또한 29점의 사진엽서도 스톡 포토로서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진엽서는 대부분 북만(北滿) 사진인데, 하이라얼이 24점, 만저우리(滿洲里)가 4점인데 실제로는 모두 노몬한사건 관련이다.

특히 전전(戰前)의 회원제 사진협회가 발행한 『아동인화집(亞東印畫輯)』이나 『아세아대관(亞細亞大觀)』 사진이 스톡 포토로서 이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진첩에 관해서는, 필자가 공익 재단법인 동양문고(東洋文庫)와 공동구축한 2개의 사진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후지창고 자료로 전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⁶⁾ 이 두 종류의 사진첩에서 총 109점의 사진은 그 테마가 사건과 무력 충돌이 아니라 몽골인의 일상생활과 풍속, 풍경이 중심 토픽임을 알 수 있다.

『아동인화집』은 다련(大連)이 거점이었던 아동인화협회(亞東印畫協會, 전신은 1923년 6월 사쿠라이 이치로(櫻井一郎)가 결성한 만몽인화협회)에 의해 1926년 1월에 창간된 사진첩이다. 이 아동인화협회가 만주국과 몽골 촬영에 주력하

6) 인간문화연구기구(NIHU) 지역연구 프로그램의 공익재단법인 동양문고와 필자의 공동성과로서 다음의 2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공개중이다.

기 시작한 것은 1931년 만주사변 발발 전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협회가 발행하던 월간 문화소잡지 『아동(亞東)』 제8권 제7호(1931년 7월 15일 발행)에 게재된 ‘협회 소식’은 “다행히 몽고 왕부(王府) 당국으로부터 다대한 후원을 받아 지난 7월 28일, 자동차와 마차 몇 대를 끌고 장자커우(張家口)를 출발, 장도(壯途)에 올랐습니다. 강철도 녹일 듯한 대평원의 염서(炎暑)를 정복해가는 카메라맨의 필사적인 노력은 반드시 위대한 수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몽골 관련 사진’에 포함된 『아동인화집』 사진 81점 중 70%를 차지하는 58점은 리허성 청더(承德)의 피서 산장을 찍은 것이었다.

또한 1924년에 다롄에서 창간된 회원제 사진첩 『아세아대관』은 아세아대관사의 시마자키 야쿠지(島崎役治) 카메라맨이 찍은 사진을 배포했다. 시마자키는 1918년에 만주로 건너간 후 스즈키(鈴木)상점이 경영하는 호넨(豊年)제유 회사에 입사했지만, 3년 만에 퇴사하고 『아세아대관』 창간에 참여했다.⁷⁾ ‘몽골 관련 사진’은 『아세아대관』 사진 28점을 포함한다. 단, 『아세아대관』 사진은 풍경, 풍속, 방목, 라마교 등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 것이 각 5~7점 포함되어 있지만, 『아동인화집』처럼 특정 토픽에 특화되지는 않았다.

2. 아사히신문사 특파원의 취재 사진

아사히신문사의 중국 대륙 취재 거점은 오사카 본사, 나중에는 규슈(九州) 지사였다. 아사히신문은 1930년대 들어서 독자적인 취재를 위해 적극적으로 특파원을 파견했고, 후지창고 자료에도 그들이 남긴 사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규슈 지사는 1935년 1월에 타이완과 중국대륙 등의 취재 정보를 신속하게 지면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모지(門司) 지국을 개편하여 성립되었고, 다음 달부터 오사카 본사를 대신하여 ‘대만판’, ‘만주판’ 이른바 외지(外地)판 발행 업무도 담당하게 되었다(F046-18-03) (이하 괄호 안의 F번호는 후지창고 자료 배서의 ‘아이템 번호’를 나타낸다).

7) 柳澤遊, 2004, 『1940年代初頭大連日本人個人經營者の経歴について』, 『經濟學研究』 第70卷 第4・5合併号, 福岡: 九州大學經濟學會, 18쪽.

오사카 본사와 규슈 지사에서 많은 특파원이 분쟁지역, 전투지역으로 파견되었다. 물론 그들이 단독으로 전쟁 취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중군기자라는 직함을 가지고 부대의 본부 정보참모 등을 만나 정보를 얻었다(F046-18-03). 특파원은 전선의 장병만큼 위험에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피해자가 생겼다. 1933년 3월 17일 『도쿄아사히(東京朝日)신문』 호외에는 같은 달 10일, 허베이(河北)성 구베이커우(古北口)에서 가와하라(川原) 부대와 동행하던 후지모토(藤本) 특파원이 저격당했을 때, 오사카마이니치(大阪毎日) 신문사의 이시카와(石川) 특파원이 도우러 달려온 것, 와다(和田) 본사 특파원의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게재되었다. 각기 다른 신문사에서 파견된 특파원들이 집단행동을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후술하는 노몬한사건(할하강 회전, 할훈골 전투)에서도 이러한 특파원의 활약이 두드러져, 『만몽 국경 아무쿠로(阿穆古朗)에서의 본사 특파원 활약 6월 25일(滿蒙國境 アムクロにおける本社特派員の活躍 6月25日)』 등 스스로의 활동을 찍은 사진도 남아 있다(F046-17-23).

특파원의 특종 사진 촬영에서 지면 게재까지는 그야말로 시간과의 경쟁이었다. 예를 들어, 1928년 6월 오사카아사히신문사의 미야우치 요시카쓰(宮内靈勝) 카메라맨이 찍은 장쥘린(張作霖) 폭살사건 필름은 급행열차로 황구툰(皇姑屯)에서 평양까지 운반되고, 그곳에서 아사히신문사 전용기 ‘하쓰카제(初風)’로 일본에 공수되어 다음날 『오사카아사히신문』의 호외로서 배포되었다.⁸⁾ 또한 기록에 따르면 1933년 3월 모기(茂木) 부대, 가와하라(川原) 부대가 각각 츠핑(赤峰), 링위안(凌源)에 입성했을 때는 러허사건에 관한 아사히신문의 취재 체제가 강화된 덕분에 전처럼 특파원 사진이 평양까지 갈 필요는 없었고, 자사기로 진저우(錦州)에서 오사카까지 공수해 다음날 『오사카아사히신문』의 호외가 되었다(1933년 3월 5일자).

1939년에는 이렇게 물리적인 정보전달보다 빠르게 취재성과를 일본에 전달하기 위한 기술 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노몬한사건 와중인 1939년 7월

8) 朝日新聞取材班, 2007, 『「過去の克服」と愛國心』, 東京: 朝日選書, 92~93쪽.

바르샤갈 고지에서 동맹통신사가 ‘일만전송체신자실험사진(日滿電送遞信者實驗寫眞, 일부 나선 사용)’을 송신하였고(F046-15-19), 후이푸사(甘珠爾) 비행기지에서 아사히신문사의 야마자키(山崎) 특파원이 촬영한 항공대 사진을 ‘신징(新京)-오사카 간(일부 나선 사용) 체신성실험전송 사진’으로서 송신했다(F046-17-05). 그리고 같은 해 말에 개최된 만몽국경위원회 치타 협상에서는 체신성선으로 오사카아사히신문 평텐(奉天) 통신국에서 오사카 아사히신문사 사진부로 사진을 전송했다(F046-16-19). 이러한 통신기술 실험은 1940년 9월이 되자 체신성의 마츠마에 시게요시(松前重義), 시노하라 노보루(篠原登) 등이 개발한 무장하반송(無裝荷搬送) 방식 루트가 신징-도쿄 간 약 3000km로 개통됨에 따라 인정되었다.⁹⁾ 이러한 장거리 케이블 부설은 바다로 나뉘어 무선 통신에 의지해야만 했던 타이완과 비교하면 정보 네트워크의 정확성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단, ‘몽골 관련 사진’이 아사히신문사 기자나 특파원의 취재 사진뿐이었던 것은 아니다. 물론, 도쿄의 동맹통신사와 만주국 통신사에서 배포하는 사진도 보관하여 이용했다. 이 사진들 속에도 1926년 발족한 신문연합사가 제공한 사진 104점, 1936년 1월 같은 회사를 모체로 성립된 동맹통신사의 배포사진 58점 외에, 신징사진통신사 6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합사 다케이(武井)사진반원’(F054A-13-01), ‘전선에서 활약하는 연합 특파원’(F054A-13-02) 등의 사진이 남아있다. 이 사진들을 ‘입수일’과 대조하면 신문연합사는 주로 리허사건, 동맹통신사는 주로 노몬한사건 관련 보도사진을 배포했다. 그러나 동맹통신사의 경쟁 상대였던 일본전보통신사(日本電報通信社)의 사진은 없었다.

9) 白戸健一郎, 2016, 『滿洲電信電話株式會社:そのメディア史的研究』, 大阪: 創元社, 제1장 참조.

Ⅲ. 시공간 축으로 사진을 파악한다

다음 페이지의 표2를 작성할 때, 위와 같이 정치공간으로 분류하면서 어떻게 시계열화를 꾀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진인 이상, 촬영 자만이 아니라 촬영 장소와 날짜도 중요한 기록 요소이다. 단, ‘몽골 관련 사진’ 뒷면에 촬영 날짜가 기록된 사진은 매우 적으므로, 이것만으로 사진의 시계열 분석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오사카아사히신문 본사(사진부)가 날인한 ‘입수일’을 지표로 삼으면 ‘몽골 관련 사진’의 93.8%를 시계열로 정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표2의 시계열 정리는 ‘입수일’에 기초하여 실시했다. 당연하지만 이는 촬영 시기와 가까운 것도 있으면 동떨어진 경우도 있다.

이 표2를 보면, ‘몽골 관련 사진’은 1928년 이전 것은 없고, 1942년 이후 것은 겨우 5점으로 매우 적다. 즉, 후지창고 자료에서 추출한 ‘몽골 관련 사진’은 주로 1929년부터 1944년까지 아사히신문이 입수한 사진들이며, 특히 1933년부터 39년까지의 사진이 많다는 사실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중 수용 시기가 가장 오래된 것은 1929년 4월 22일 오사카아사히신문사가 다렌의 이동인화사로부터 구입한 사진이다(F017-20-16).¹⁰⁾ 이 F017-20-16번 사진 ‘몽고어 간관(滿洲里)’에는 다음과 같은 배서가 쓰여 있다.

역사상으로는 원나라 멸망한지 이미 오래고, 따라서 이 몽고 문자도 지금은 죽은 문자의 하나로 여겨졌다, 허나 수백만 몽고민족이 살아있는 한, 실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문자로서 도움이 될 터이다. / 국경의 시가지 만저우리에서 이러한 간관을 보노라면 몽고민족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통감할 수밖에 없다.

10) 그러나 ‘몽골 관련 사진’ 중에서 촬영 시기가 가장 빠른 사진은 『아세아대관』에 게재된 장자커우·원취안사(雲泉寺)의 동굴 사진으로, 1925년 1월이다(F013-43-57).

<표 2> 지역별·시대별 사진수

	滿洲国										日本	ソ連	モンゴル 人民共和 国	国境 ハルハル 朝鮮	其他	合計	%
	蒙疆政權	綏遠省	察哈爾省	奉天省	浙江省	新京	龍江省	黑龍省	熱河省	華北							
1928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
1929	0	0	0	0	0	0	40	2	0	0	0	2	0	0	0	44	1.7%
1930	0	0	0	0	0	0	6	0	0	0	0	0	0	0	0	6	0.2%
1931	0	4	0	0	0	0	0	0	0	0	0	4	0	0	4	12	0.5%
1932	0	1	0	0	0	0	42	30	0	0	0	0	0	0	0	73	2.8%
1933	1	8	11	0	17	0	26	1086	81	0	0	1	0	9	28	1268	48.4%
1934	0	7	0	0	0	0	45	88	0	0	0	0	0	0	9	149	5.7%
1935	0	8	0	0	0	0	1	25	1	0	0	6	1	0	10	54	2.1%
1936	15	32	0	0	0	0	0	8	2	0	0	4	0	2	8	75	2.9%
1937	70	25	0	0	0	0	5	6	0	0	0	27	1	3	1	138	5.3%
1938	29	33	1	0	0	3	19	3	0	4	0	3	0	33	16	144	5.5%
1939	53	36	0	6	11	0	82	0	0	0	0	220	2	2	2	414	15.8%
1940	8	7	0	7	2	0	7	2	0	0	0	0	1	2	3	42	1.6%
1941	1	3	0	1	0	0	1	0	0	0	0	1	0	0	3	10	0.4%
1942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	2	0.1%
1943	0	1	0	0	0	0	0	0	0	0	0	0	0	1	0	2	0.1%
1944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1	0.0%
194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
不明	13	23	0	2	1	2	53	43	0	0	20	5	0	1	23	186	7.1%
合計	190	188	12	16	31	6	359	1264	81	4	251	50	5	59	104	2620	100.0%
%	地蔵野37%	14.4%					地蔵野168%	64.4%	地蔵野6%	3.2%	9.6%	1.9%	0.2%	2.3%	4.0%	100%	

【出典】朝日新聞大坂本社所蔵「富士倉庫資料」より。

이 서술에서 아사히신문사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인의 몽골 인식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즉, 당시의 몽골 표상은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 쿠빌라이 칸의 원나라 시대에 머물러 있으며, 이후의 명, 청에서 이어지는 중화민국(베이징정부 시기)의 몽골인이 걸어온 역사적 과정을 일본인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보면, 아사히신문사는 1930년대에 일어난 각종 분쟁하의 몽골을 독자적으로 취재하는 과정에서 지역 인식이 심화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독자 또한 지역분쟁 기사와 함께 몽골 이미지가 변화했다는 사실이 실태와 동떨어진 민족상, 지역상이 일종의 허상으로 서 침투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추측된다.

한편, ‘몽골 관련 사진’의 가장 새로운 사진은 거의 종전 1년 전인 1944년 5월 30일 아사히신문의 무라카미(村上) 특파원이 러허에서 촬영한 ‘칭더의 라마사원 포탈라 궁(承徳のラマ寺 布達拉廟)’이다(F005A - 78 - 46). 이 사진의 메모안으로는 알 수 없지만, 실제 촬영 시기는 후술하는 러허사건 전후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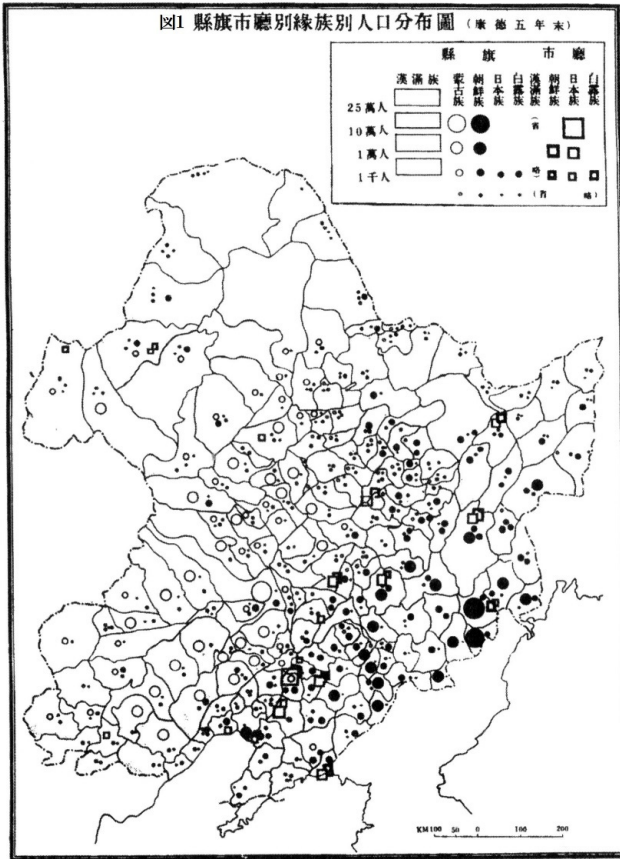
V. 주요 역사적 토픽을 밝힌다

이상과 같이, ‘몽골 관련 사진’을 시공간 축에 따라 정리하고 데이터를 입력하면 특히 사진 수가 많은 것은 다음 세 시기의 사건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앞의 표2를 봐도 분명하다. 즉, 모두 국토와 국경에 관련되는 분쟁 지역이라는 점이 공통적이다. 이하, 각 시기 ‘보도사진’의 자료적 특징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미 확인했듯이 오사카 아사히신문 본사의 사진 보존수가 극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1933년이며, 표2를 보면 그 대부분이 러허성에서 찍은 사진임을 알 수 있다. 러허성 관련 사진은 후지창고 자료의 ‘몽골 관련 사진’ 중에서도 분명 독보적인 숫자이다. 그림1 「현기시청별 연족인구분포도(縣旗市廳別緣族人口分佈圖)」(○표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러허성은 몽골인의 중요한

거주 지역 중 하나였다. 즉, 오사카아사히신문사가 ‘몽골 관련 사진’을 보존하는 계기가 1933년 1월 러허 침공이었음은 분명하다. 러허성에는 유명한 티베트사원 외팔묘(外八廟)도 있었다. 아사히신문사가 러허작전에 전면적으로 관여했음은 이미 줄거에서 논한 바 있다.¹¹⁾

[그림 1] 「현기시청별 연족인구분포도(縣旗市廳別緣族人口分佈圖)」



「県旗市庁別縁族別人口分佈圖」(宮川善造『人口統計より見たる満洲国の縁族複合状態』1940年より)

11) 貴志俊彦, 2010, 『満洲國のビジュアル・メディア—ポスター・繪はかき・切手』, 東京: 吉川弘文館, 57~61쪽.

표 2에서 그 다음으로 사진 수가 많은 토픽은 1939년 할하 강변이다. 물론 이는 노몬한사건(할하강 회전) 보도사진을 가리킨다. 또한 1933년의 러허 작전과 39년의 노몬한사건 사이에도 취재 공세가 일어났다. 그동안 루거우 차오(盧溝橋)사건을 계기로 중일전쟁이 일어나 남쪽은 상하이전선으로 비화했지만, 북쪽은 1937년 8월에 차하르작전이 진행되고 있었다. 표2를 봐도, 후술하는 뎬축 돈롭(德穆楚克棟魯普, 德王)가 거점으로 삼은 쉰이위안성과 차하르성 관련 사진 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을 확인한 다음 러허사건, 차하르작전, 노몬한사건을 서술하고자 한다.

1. 러허사건 발발에서 탕고정전협정 체결까지(1933년 2월~5월)

표2와 같이, 이 시기는 ‘몽골 관련 사진’ 속에서 특히 사진 수가 많다. 그야말로 만주국과 중화민국이 러허성 귀속 문제라는 국토 문제를 놓고 공방전을 벌이던 시대였다. 러허 성 통치 주체는 이미 1932년 7월 차오양(朝陽)사건, 이듬해 1월의 산하이관(山海關)사건으로 문제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건성이 중요해진 것은 1933년 2월에 장쉐량(張學良)군이 일으킨 러허 침공, 그리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 같은 날 만주국군과 관동군이 발표한 러허토벌 성명에 의해서였다. 그 후, 탕고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의 4개월 남짓 동안, 아사히신문은 이 사건에 관하여 공중 촬영을 포함한 다각적이고 방대한 취재 활동을 진행하였고, 상세한 사건 보도를 실시했다. 실제로 『도쿄아사히신문』만으로도 특과원 기사를 포함하여 937개의 기사와 16개의 호외를 발표했다. 또한 잡지 『아사히그래프(アサヒグラフ)』는 각각 487호(1933년 3월 8일)에 ‘일만군의 러허토벌(日滿軍の熱河討伐)’, 488호(1933년 3월 15일)에 ‘러허토벌화보(熱河討匪畫報)’라는 사진 특집을 꾸렸다. 이 기간 동안 신문에서 ‘러허’ 글자가 사라지는 날이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아사히신문사는 영화관 등에서 1933년에 촬영한 무성 다큐멘터리 영화 <풍운이 감도는 러허(風雲急を告ぐる熱河)>, <황군 청더 입성(皇軍承德入城)>이나 유성영화 뉴스 <지켜라 러허를(護れ熱河を)>, <러허 대토벌(熱河大討伐)>, <황군 약

진(皇軍躍進)〉, 연속 시리즈 <러허토벌(熱河討伐)>을 자주 상영했는데,¹²⁾ 결과적으로 볼 때 영상 필름으로써 일본 전국의 ‘러허열(熱河熱)’을 부추긴 것이었다.

‘몽골 관련 사진’ 중 러허사건 관련 사진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① 군의 상세한 움직임: 군 관련 기밀 유출 법안의 정비는 메이지(明治)기에 이미 굳어 있었다. 즉, 1871년에 제정된 해육군형률(海陸軍刑律) 총 204조에서 군인의 기밀 누설을 모반으로 간주한 것에서 출발하여, 1888년에는 군인 이외에도 확대 적용되었고 또한 1898년에는 ‘군사상 비밀사항 또는 도서(軍事上秘密の事項又は圖書物件)’ 보호를 목적으로 ‘군기보호법’이 제정되어 일본의 방첩 법제는 거의 정비되었다고 한다.¹³⁾

그러나 신문사가 파견하는 중군기자가 행군 동행 과정에서 취재하는 경우, 때로는 각 사단, 연대, 부대의 세세한 움직임까지 기록되는 경우도 있었다. ‘몽골 관련 사진’을 보면, 사카모토 마사에몽(坂本政右衛門) 중장이 이끄는 제6사단과 니시 요시카즈(西義一) 중장이 이끄는 제8사단의 각 여단과 부대는 물론(F004B-05-19, F004B-05-21, F005A-66-01 등), 장하이펑(張海鵬) 장군이 이끄는 만주국군(F054A-14-58, F054A-14-75), 몽고군의 소년대(F054A-14-76)나 중포격포(F054A-14-79) 사진이 남아있다. 또한 이 부대들이 이동할 때 사전 정찰 또는 전과의 효과 확인을 위해 자사기 혹은 육군의 아이고쿠(愛國)호(F054B-07-01)처럼 경폭격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몽골 관련 사진’ 중에도 란취강(灤河), 첸안(遷安), 차오양, 난링(南嶺), 카이루(開魯), 통랴오(通遼), 구베이커우(古北口), 산하이관, 쿤산(昆山) 등 다수의 공중 촬영 사진이 포함된다. 후지창고 자료 전체로 보아도 이 시기의 공중 촬영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12) 『東京朝日新聞』朝刊, 1933年 2月 23日, 26日, 3月 7日.

13) 林武他, 2011, 『研究ノト軍機保護法の制定過程と問題点』, 『防衛研究所紀要』第14巻 第1号, 東京: 防衛省防衛研究所, 88~91쪽.

② 선무활동 모습: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러허사건 때 ‘선무(宣撫)’라는 말이 처음 정식으로 사용되었다. 1933년 2월부터 진저우에서 선무활동을 시작했을 때의 모습(F054A - 06 - 74), 차오양의 선무활동(F054A - 07 - 02, F054A - 07 - 06~15), 관청(寬城)의 무료 구호반 활동(F054A - 10 - 30, F054A - 10 - 32), 또한 시펑커우(喜峰口) 성내에 선전 포스터를 붙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F054A - 10 - 31). 만주사변 발발부터 만주국 성립에 이르는 기간 동안 선무홍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중일 쌍방의 전단 및 유인물을 직접 촬영한 사진을 보아도 명백하다.¹⁴⁾ 이 사진을 통해 러허사건 때 선전 매체가 적극적으로 이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F05A - 11 - 1~13, F05A - 11 - 30~32, F054A - 13 - 03~F054A - 13 - 11, F954B - 06 - 26).

러허사건으로 아사히신문은 군의 협력을 얻어 취재활동을 하는 체제를 확립했고, 이는 어용신문으로 변질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2. 차하르작전에서 몽강연합위원회의 첫 방일까지(1937년 8월~1938년 11월)

이어서 1937년 8월부터 10월에 걸쳐 실시된 차하르작전이라고 일컬어진 내몽골(차하르성·쑤이위안성)의 분리공작 시기에도 ‘몽골 관련 사진’은 적지 않았다. 물론 그 해 7월에 일어난 루거우차오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지만, 이 두 성에서는 이미 1934년 10월과 이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베이징에서 북쪽인 하베이성 장베이(張北)현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분쟁의 불씨가 거세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장베이현에서 중국군이 일본군인과 특무기관원을 감금했다는 미증유의 사건은, 장성 이남만이 아니라 차하르성이나 쑤이위안성도 중일 양국의 분쟁지역이라는 사실을 일본의 관료, 군에 인식시켰다.

따라서 일본 언론이 중일 양국 협상의 중심인물로서 눈여겨 본 것이 당시 몽고지방자치 정무위원회 비서장이었던 템축 돈롭(德王)였다. 실제로 차하르작전 발발의 1년쯤 전에 덕왕의 이름이 실린 기사는 『도쿄아사히신문』만 해도 95개나 되었다. 물론 ‘몽골 관련 사진’에도 덕왕을 찍은 사진이 많다.

14) 貴志俊彦, 2010, 앞의 책, 76쪽.

이 사진들 중에도 이 시기의 정치 변동을 반영하여 찰남(察南)자치정부, 진베이(晋北)자치정부, 몽고연맹자치정부(F013 - 43 - 55, F013 - 43 - 59, F015 - 07 - 01, F015 - 07 - 01~02), 그리고 그들이 연합하여 1937년 11월에 성립한 몽강연합자치정부 관련 사진이 촬영되었다(F013 - 43 - 04~05, F046 - 20 - 66~69). 그 중에서도 1938년 덕왕이 찰남자치정부 최고위원 유핀킹(于品卿), 진베이자치정부 최고위원 자이공(夏恭), 몽고군 총사령관 리슈신(李守信)과 함께 나타난 첫 방일 모습은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F015 - 09 - 01~16, F015 - 30 - 03~21). 덕왕 일행이 아사히신문 오사카 본사를 방문하여 휘호하고 있는 사진도 남아 있다(F015 - 30 - 03). 또한 『아사히 그래프』 783호(1938년 11월 9일)는 ‘일등훈장에 빛나는 아시아의 풍운아 덕왕(勳一等に輝くアジアの風雲兒徳王)’이라는 사진 페이지를 만들어 덕왕의 방일 모습을 묘사했다.

이 시기의 ‘몽골 관련 사진’은 쑤이위안 전선의 핑디취안(平地泉)에서 일어난 군사충돌에 관한 사진도 있지만, 차하르성이나 쑤이위안성의 풍경이나 몽골인의 생활 모습을 찍은 사진이 많은 것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특히 1937년 11월에 성립한 몽강연합자치정부의 거점이었던 장자커우 일대의 습속을 찍은 사진이 많다. 오보, 오보제, 가면무용 참, 여름 축제 나담(경마, 부호라고 하는 몽골 씨름), 라마, 티베트 불교 사원, 게르(몽골 텐트) 등 ‘몽고 풍속’으로 분류된 사진이 많으며, 또한 목축 모습, 다징먼(大境門)에 있던 낙타 가게, 장자커우를 기점으로 한 몽고 무역(F013 - 43 - 12~13, F013 - 43 - 19~22, F013 - 43 - 32) 등 몽골인의 생업 관련 사진도 있었다.

3. 노몬한사건 발발에서 만몽국경획정회의 종료까지(1939년 5월~1940년 1월)

1) 노몬한사건 전사(前史)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만몽국경 지대의 만일·몽소 관계 긴장은 노몬한사건 때문만은 아니다. 사건의 발단은 그 4년 전인 1935년 1월에 만주국 서북부의 후룬베이얼 평원에서 국경 경비 방식을 놓고 몽골 측과 일만 측 사이

에서 발포사건이 발생(할하묘(廟)사건이라 한다)했고, 이어 5개월 후에는 일본군 측량대가 체포되는 이른바 하이라스틴골(Khalastin Gol, 홀스텐강)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¹⁵⁾ 사실 이미 1934년부터 국지적인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이 두 사건을 계기로 만주국군이 후룬베이얼 평원의 국경지대에 감시부대를 상주시킨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이것이 더 큰 분쟁의 불씨로 비화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35년에는 176회, 36년에는 152건, 37년에는 113건, 38년에는 166건, 39년에는 195건의 국경분쟁이 일어났다.¹⁶⁾ 노몬한사건은 이러한 국경분쟁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셈이니,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거의 5년 가까이 국경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찾지 못한 필연적 귀결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아사히신문사는 이 일련의 만몽소 국경문제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었는지 간단히 살펴보자. 이 물음은 언론이 주체적으로 보도하려 노력한다는 너무나 상식적인 사실을 의식하면서도 그 주체성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일의 발단은 1935년 1월에 일어난 할하묘사건이었다. 이때 사진은 ‘몽골 관련 사진’에 총 18장 있는데, 사건 다음날에는 오사카 본사에 소장되어 있었다. 그 중 두 장의 사진은 할하묘 내부가 파괴된 모습이 찍혀있다(F036-08-05, 06). 또한 현장의 유류품으로서 레닌그라드 국립연초제조 담배와 소련제 소총용 총탄이 찍혔다(F036-08-11). 현장에 어떤 인물이 있었는지 추측할만한 단서이다. 이 사진은 카메라맨과 피사체 간의 거리가 매우 근접해있으므로 각 회사에서 파견된 중군 기자가 찍은 사진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몽골 관련 사진’의 뒷면에는 아사히신문사 특파원이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 외(무기명), 만주국통신사 사진부(F036-08-03~08, 12, 15)와 도쿄신문연합사의 도장이 찍힌 사진이 있다(F036-08-11, 19).

15) 『東京朝日新聞』朝刊, 1939年 5月 31日.

16) 防衛廳防衛研究所戰史室, 1969, 『戰史叢書 關東軍(1)一對ノ戰備・ノモンハン事件』, 東京: 朝雲新聞社, 310~311쪽.

할하묘사건 이후 국경선을 확정하는 만저우리회의가 1935년 6월부터 전 북철(北鐵)중학교에서 열렸다(F005B-92-20). 사실 아사히신문사는 1929년경부터 이 국경 마을의 치밀한 조사를 진행했고, 후지창고 자료에 관련된 사진이 적지 않게 남아있다. 할하묘사건은 비록 사상자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후의 군사적 충돌에 비교하면 국지적인 충돌 규모 정도였다. 그러나 이 사건이 양국에 알려진 사실은 큰 의미가 있었다. 즉 몽골 소련 측은 할하강가의 동쪽 20킬로미터 지점을 국경으로 이해하고 있던 반면, 만주국·일본 측은 할하강이야말로 국경선이라는 인식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양쪽의 이 착종하는 국경 인식이 처음 드러난 것이다.¹⁷⁾ 이 인식을 시정하고 국경선을 확정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 만저우리회의였다.

이 회의는 1937년 9월까지 4회 개최되었지만 모두 만몽 양쪽의 사고방식보다 그 배후에 존재한 일본과 소련의 의향에 따라 결렬됐다. 사실 일소 양국은 만저우리회의의 성공으로 만몽 양국이 타협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자국의 정치적 영향력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갖가지 요구를 했으므로 그 뜻대로 회의가 결렬된 것이다. 이 결렬된 회의의 유일한 성과라고 할 만한 것은 국경 획정의 행위자가 만주·몽고 쌍방이 아닌 일소 양국의 견해를 절충할 수 있는가, 라는 사실을 관계자가 자각했다는 사실뿐이었다. 실제로 몽골대표단의 배후에서 소련공산당 정치국이 협상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스탈린이 직접 지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도호쿠(東北)대학 데라야마 교스케(寺山恭輔)의 최근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¹⁸⁾ 이는 일소중립조약 체결 후인 1941년 6월에 일소 간에 개최된 만몽 국경회의협정에 따라 현안이었던 국경문제를 확정시킴으로써 증명되었다.

그런데 1935년에 개최된 제1회 만저우리회의의 도중 하이라스틴골(홀스텐강) 사건이라 불린 유괴·납치 사건이 일어났고, 12월에는 오라호도가사건이

17) マンダフ・アリウンサイハン, 2005, 『満州里會議に關する一考察』, 『一橋論叢』第134卷 第2号, 東京: 日本評論社, 114, 129쪽.

18) 寺山恭輔, 2017, 『スターリンとモンゴル 1931-1946』, 東京: みすず書房, 286쪽.

일어났다. 후자의 사건은 부이루호 서측에 주둔하고 있던 만주국군 소속 국경 경비병이 몽골군의 공격을 받고 약 2개월 동안 교전이 이어졌는데 몽골 측은 장갑차 부대와 폭격을 가했다. 이 사건 담당 기사는 아사히신문사의 이노우에 신지로(井上震治郎) 특파원이었던 듯 하며, 50장 미만의 사진이 후지창고 자료에 남아 있다(F036-23-01~48). 이노우에 특파원이 찍은 사진 한 장에는 흥미로운 사실이 쓰여 있다. 아슬묘(アッスル廟)에서 경비대장 외에도 사진촬영 현장검열관 구로타쓰(黒龍) 군조를 촬영한 한 장이다(F36-23-28). 이 사진을 통해 전투 현장에는 ‘사진촬영 현장검열관’이라는 직무의 군인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전투 현장에서 이미 게재 여부가 결정되었던 셈이므로, ‘몽골 관련 사진’에 저장된 노몬한사건 관련 사진은 실령 검열 도장이 없어도 모두 ‘검열’되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보존된 사진의 의미를 생각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듬해 1936년 3월에는 창링즈(長嶺子)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훈춘(琿春)에 파견된 도쿠나가(徳永) 헌병대장, 후카호리(深堀) 참모, 요네오카(米岡) 지대장, 하시모토(橋本) 훈춘 특무기관장, 요시다(吉田) 참모들의 단체 사진이 남아있다(F036-22-20). 이 사진은 규슈 지사에서 도쿄로 전송되어 4월 5일 『도쿄아사히신문』 석간에 실렸다. 그 캡션에는 사진을 찍은 것이 아사히신문사의 나가하마(永濱) 특파원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노우에 특파원의 교대요원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후에도 헬레무테(ヘルムテ)사건, 아다구드란(アダグドラン)사건, 부이루호사건, 보른데르스(ホルンデルス)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했고, 양측의 긴장은 고조되어 갔다.¹⁹⁾

그런데 만몽 간의 국경분쟁이나 국경교섭에 대한 일본 국내의 무관심은 지속되어,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1935년, 36년에 각각 6점, 4점, 노몬한사건 발발의 1~2년 전에도 0점일 지경이었다. 노몬한사건에는 러허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특파원이 파견된 것에 비하면, 이 시기는 아직 취재 의욕이 부족했다고 평할 수밖에 없다. 그 의미는 보도사진 촬영 및 보

19) 東亞問題研究會, 1938, 『蒙古要覽』, 東京: 三省堂, 195쪽.

존 여하는 반드시 사건의 역사적 의미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국내 정세에 좌우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상품화된 정보의 가치가 신문사의 사진보존 정책을 좌우하게 된 것 또한 사실이었다.

2) 노몬한사건 보도

노몬한사건에 관한 『도쿄아사히신문』의 기사 게재는 사건 발생 3일 후 ‘외몽고 백 명 월경 만주국군 교전 격퇴하다(外蒙古百名越境 滿洲國軍交戰擊退す)’에서 시작되었다. 이 기사에는 ‘신징 13일발 특전(新京13日發特電)’과 ‘신징 13일발 동맹(新京13日發同盟)’이라는 2통의 전신이 게재되었다. 이 사건에 관한 ‘몽골 관련 사진’은 ‘노몬한사건’, ‘할하강사건’, ‘만몽국경사건’ 등 다양한 사건명을 사용했다. 몽골인민공화국정부가 대일 선전포고를 행한 것은 1945년 8월 14일에 이르러서였고, 양국 모두 이 시기에는 아직 ‘전쟁’이라는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노몬한사건이 계기가 된 일본 사회의 만몽국경문제를 향한 관심의 고조는 『도쿄아사히신문』에만 686개 기사가 게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아사히 그래프』 820호(1939년 7월 26일)에도 ‘할하 오른쪽 기슭에 적의 그림자 없음(ハルハ右岸に敵影なし)’ 페이지를 할애했다. 이 시기 사진에는 장병의 모습 외에 아사히신문사 특파원의 활동도 찾아볼 수 있다. 그 일례가 서둘러 일인용 방공호를 준비하고 있는 사진이다. 이것은 노몬한사건 때 소련군의 전차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창안된 것이라고 한다(F046 - 20 - 53).

이 시기 사진의 특징은 이전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투 상황이나 전과에 관련된 사진이 많다는 점이다. 노로(ノロ) 고지, 바루샤갈 고지, 하이라스틴골(홀스텐강), 모호레히호, 부이루호 부근 등의 격전의 흔적을 촬영한 사진(F046 - 19 - 14, 44, 47, 51 등)이 그 예이다. 또한 ‘노몬한사건 지난 28일 공중전에 종사하여 적기 42기를 격추 전기 무사 ○○기지로 귀환한 독수리부대(ノモン事件 去る28日の空中戦闘に従事し敵機42機を撃墜 全機無事○○基地

に歸還した荒鷲隊)’(F046 - 15 - 11), ‘우리 독수리와의 공중전에서 불을 뿜으며 추락하는 B17 소련기 활하 강변에서(わが荒鷲との空中戦にて火をふきながら落ちゆくB17ソ連機 ハルハ河畔にて)’(F046 - 15 - 14), “탐스크 공중전에서 무훈을 세운 시마다 겐지로(島田健二郎) 대장(사진 왼쪽), 21기 격추 기록을 수립한 고 시노하라 히로미치(篠原弘道) 준위(사진 오른쪽), 간주얼(甘珠爾) 기지에서(タムスク空中戦に武勳をたてた島田健二郎隊長(向ツテ左)21機撃墜の記録を樹立した故篠原弘道准尉(向ツテ右)甘珠爾基地にて)’(F046 - 17 - 09) 등과 같이 전과를 과시하는 사진이 매우 많다.

특히 소련군의 전리품 내용은 상세한 사진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 37밀리 포와 무전 장비를 갖춘 오스틴 장갑차(F046 - 07 - 01), 6륜차병전차(6輪車並戰車, F046 - 07 - 07), 수냉식 기관총(F046 - 08 - 12), 대전차포(F046 - 19 - 39) 등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또한 소련 항공대 레드루민스키 특별상사(F046 - 07 - 04)나 몽골인민공화국군 병사(F046 - 08 - 14) 등의 포로도 일종의 전과로서 선명하게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탐스크 공습은 촬영해도, 그 행위 자체가 분명 일본군의 월경행위였다는 사실(군 내부에서도 문제가 되었다)은 사진 뒷면에도 쓰지 않았다.

이 사진들 중에 흥미로운 사진이 한 장 있다. 노몬한사건의 전선에서 UP 통신기자를 찍은 사진이다(F046 - 17 - 19). 이 사진이 찍히기 약 한 달 전에도 외국인 기자가 활하 강변의 전선을 취재하러 와있었으며, 그들은 아사히신문의 특파원과 행동을 함께 하고 있었음이 사진으로 밝혀졌다(F046 - 17 - 21). 노몬한사건을 취재하는 구미의 보도 관계자는 일본군을 수행하였고, 그러한 입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몽골 관련 사진’ 속에는 미국의 사진 통신사 International News Photo(INP)의 사진도 3장 포함되어있다. 단, 당시 아사히신문사는 INP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신문연맹사가 전달한 사진인지도 모른다(F017 - 20 - 04, F017 - 20 - 37, F046 - 19 - 91).

이 밖에 노로 고지에서 개척된 현지정전협정의 체결 상황도 찍혀있다. 노몬한사건의 휴전 협상은 1939년 9월 15일에 모스크바에서 도고 시게노리(東郷茂徳) 주소특명전권대사와 몰로토프 외무장관 사이에서 합의에 도달했지

만, 그 한 달 전에 만주국 전권대사 시모무라 노부사다(下村信貞)가 치타에서 보그다노프와 물밑협상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다(F046-16-28). 후쿠오카(福岡) 현 출신인 시모무라 노부사다는 원래 만철 사원이었다. 도쿄제국대학 졸업 후 만주로 건너가 만철의 하얼빈 사무소 정보부 차장 등을 역임한 후 만주국 외교부에 들어가 정무사장, 차장에 올랐다. 시모무라에게 사숙한 가지우라 도모키치(梶浦智吉)는, 시모무라가 1940년 만주국 전권대사로서 다음에 살펴보는 만몽국경획정 교섭을 타결함으로써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적었다.²⁰⁾ 그러나 실제로는 만몽 양국(일소 양국이라 해야 할까) 국도를 둘러싼 무승부라 할 만한 결과였다.²¹⁾

같은 해 9월 18일에는 노로 고원에서도 후지모토 테츠크마(藤本鐵熊) 소장 과 포타포프 소장 등 일소 양군 사이에서 제1회 현지정전협정의 정식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때 현지 협상 과정을 상세히 촬영한 것은 아사히신문사의 가도카와(角川), 아마자키(山崎), 마츠다(松田) 3명의 특파원이었고, 소련 측도 영화팀이 이 상황을 촬영했다(F046-18-01~29 F046-19-102). 정전협정 종료 후 20일에는 일소 대표의 기념 촬영이 이루어진 데 이어, 후룬베이얼 고원의 국경지대에서 전몰장병 합동위령제가 개최되었다(F046-08-07).

또한, 제1회 만몽국경획정위원회가 1939년 12월에 소련 영내 치타에서 개최된 데 이어, 이듬해 1월에는 하얼빈의 뉴 하얼빈 호텔에서도 협의가 계속되었다. 만주국 대표로서 외무국 정무처장 가메야마 가쓰지(龜山一三), 몽골인 민공화국 대표 자무사룬, 소련 대표 보그다노프, 주하얼빈 로고프 소련영사의 이름이 사진의 배서에도 기록되어 있다(F046-16-05~07, 12, 21, 24, 27).²²⁾ 그 후, 제2회 위원회는 1940년 3월부터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는데, 여기에서도 결말이 나지 않았다. 결국 1941년 4월 25일에 발효된 ‘일소중립조약’에 의해 만몽 국경을 확정함으로써 일본과 소련은 체면을 차렸다고 할 수 있

20) 梶浦智吉, 1993, 『スターリンとの日々―「犯罪社會主義」葬送譜』, 國分寺: 武藏野書房, 20~22쪽.

21) 秦郁彦, 2014, 『明と暗のノモンホン戦史』, 東京: PHP研究所, 287쪽.

22) 『大阪朝日新聞』 夕刊, 1939年 11月 22日.

다. 단, ‘몽골 관련 사진’은 1942년 이후 것이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그 이후 국경문제의 경위를 더듬어 확인할 수 없다.

VI. 결론: 검열 문제와 관련하여

이상과 같이, ‘몽골 관련 사진’ 중 특히 수가 많았던 것은 러허사건을 필두로 차하르작전, 노몬한사건의 3개의 사건에 관련된 사진이었다. 이러한 자료를 총체적으로 보자면, 풍속과 생활보다 분쟁이나 사건 관련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의 독자에게 분쟁과 연관지어 ‘몽골’을 시각화한 것이다. 이 점에서 같은 후지창고 자료에 보존되어 있는 타이완 관련 사진과는 결정적으로 다르다. 단, 아사히신문사가 1933년 이후 몽골에 직접 특파원을 파견하기 전에 외부에서 구입한 사진에는 문화 취향이 강했으므로, 장자커우 부근 사진을 제외하면 그러한 변화가 특히 두드러진다.

아사히신문사가 ‘몽골’에 드러낸 지정학적 이해는 어디까지나 소련, 몽골 인민공화국, 중화민국과의 국경분쟁, 국토문제 등의 초점으로서의 공간이었다. 이 세 사건에서 일본 정부는 모두 분쟁의 원인은 상대국 군대의 선제 공세에 있으며, 따라서 수동적으로 군사 행동을 일으켰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사진에는 전투 피해 현장이 찍히지 않은 것 등이 어느 사건에나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보도사진은 일반적으로 사전 검열, 사후 검열은 대본영 육군부, 해군부 보도부, 그리고 내각 직속 정보국이 했다고 알려져 있다. ‘몽골 관련 사진’에도 ‘검열됨’ 183점, ‘허가됨’ 26점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군의 검열이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었던 듯하다(내각 직속 정보국이나 내무성의 검열이 행해진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단, 신문사가 군에 예속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공생관계와 비슷한 부분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후지창고 자료에서, 예를 들어 러허사변 시 군의 정보 제공에 관해서는 ‘공중에서 본 카이루(開魯) 이 사진은 군사령부에서 오사카아사히신문과 오사카 마이니치신문에만 제공한 것입니다’라는 메모(F005A - 58 - 05)를 통해 양사가 특별대우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몽골 관련 사진’ 검열 사진의 경우, 다렌, 뤼순커우(旅順港口) 그림엽서처럼 요새 사령부가 담당한 것은 예외이고(F015 - 30 - 10, 12), 대부분 관동군 사령부와 육군성이 실시했다(F046 - 08 - 14, F046 - 19 - 34, F046 - 19 - 45, F046 - 22 - 01 등). 양군의 명칭이 명기되어 있는 것은 육군성 12점, 관동군 사령부 9점이다. 기타 169점의 대부분이 ‘군 검열됨’, ‘군 허가됨’, ‘군(보도부) 검열됨’이라고 쓰여 있지만, 사진 뒷면을 자세히 보면 관동군 사령부 검열이 많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밖에 1939년 12월 14일자 『오사카아사히신문』에 이노우에 신지로 특파원이 쓴 기사 ‘만소국경 시찰기 상(滿洲國境視察記 上)’은 기사 말미에 ‘하얼빈 특무기관’이라고 검열 기관 명칭이 기재되어 있다. 특무기관처럼 바깥에 드러나기 어려운 기관도 검열에 관여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나 검열이 엄격했기 때문에 오히려 ‘몽골 관련 사진’에는 불허가 사진이 적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²³⁾ 일시적인 공개 제한을 제외하면 ‘게재 불가’, ‘게재 금지’, ‘사용 금지’라고 기재된 것은 노몬한사건에서 이마이 토시(今井俊) 특파원이 촬영한 사진 4점을 포함한 몇 점에 불과하다(F046 - 08 - 13, F062A - 07 - 01~04). 그 이유 중 하나는 본문에서도 언급했지만, 전쟁터의 사진촬영 현장검열관의 존재가 있다. 이러한 담당관이 있으면 촬영된 시점에서 이미 검열된 셈이다. 다만 노몬한사건 관계에서 군의 검열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아무쿠로와 하이러얼의 사진(F046 - 08 - 22~25)과 비교하면, 불허가 사진의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불허가 사진이 적은 또 하나의 이유는 사진 뒷면에 붉은 글씨로 쓰여 있던 다음의 설명에서 알 수 있다(F002A - 40 - 05).

23) 후지창고 자료의 ‘불허가 사진’에 관해서는 주4의 줄고①을 참조.

빈허(濱河) 연선 자란툰(札蘭屯) 시가 주의 하이라얼 방면 사진은 관동군 사령부 검열을 위해 모두 제출했습니다만, 단순히 풍속에 관한 것 외, 싱안링(興安嶺) 보커투(博克圖), 자란툰, 만저우리 등의 사진은 백 수십 장이 모조리 압수되었습니다. (편집국) 정리부는 이 사진을 복사하여 보내라고 했지만, 관동군 사령부 허가인이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쪽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기 검열은, 1941년 7월이 되자 아사히신문사 내부에서 정리부에 사열(査閱)과가 설치됨으로써 내부적으로 제도화되고 강화된다. 그야말로 보도의 공지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 연말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총동원체제에 따라 각종 규제법이 공포되고 보도반이 설치되어 당국의 보도 검열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지만, 그 이전에 이미 보도 기관이 자율 규제를 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상 ‘몽골 관련 사진’은 아사히신문사가 ‘몽골’의 습속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전선에 있던 관동군의 방침에 준하여, 말하자면 분쟁 중의 ‘몽골’을 표상했다. 『아사히신문』 독자도 이렇게 표상된 ‘몽골’을 통해서만 동시대 인식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종전 후 30년 가까이 이런 인식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일본은 몽골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내몽골자치구의 실상에 접근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1972년에 이르러 일본과 몽골인민공화국의 국교가 수립되고, 중일공동성명이 발표되기에 이르러 일본인은 마침내 몽골을 실제로 볼 수 있게 됨으로써 전전(戰前)의 이미지를 불식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보도사진’이라는 매체를 연구하는 경우, 정부와 군, 기업의 정책적 이익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은 차치하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선도 반영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싶다. 동시에 우리는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도 표상되지 않은 사실이 있음을 간과하기 쉽다. 표상 미디어를 연구할 때는 이러한 점을 끊임없이 의식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朝日新聞取材班, 2007, 『『過去の克服』と愛國心』, 東京: 朝日選書
- 梶浦智吉, 1993, 『スターリンとの日々―『犯罪社會主義』葬送譜』, 國分寺: 武藏野書房
- 秦郁彦, 2014, 『明と暗のノモンハン戦史』, 東京: PHP研究所
- 貴志俊彦, 2010, 『滿洲國のビジュアル・メディア―ポスター・繪はかき・切手』, 東京: 吉川弘文館
- 貴志俊彦, 2013, 『『朝日新聞富士倉庫資料』與中日戰爭照片審査問題』, 吳偉明編, 『在日本尋找中國—現代性及身份認同的中日互同』, 香港: 香港中文大學出版社
- 白戸健一郎, 2016, 『滿洲電信電話株式會社:そのメディア史的研究』, 大阪: 創元社
- 永井靖二, 2009, 『朝日新聞の秘藏寫眞『富士倉庫資料』とは』, 『朝日新聞の秘藏寫眞が語る戦争』, 東京: 朝日新聞出版
- 早瀬晋三・白石昌也編, 『朝日新聞大阪本社所藏『富士倉庫資料』(寫眞)東アジア關係一覽』(研究資料シリーズNo.6), 2017.3, 東京: 早稻田大學アジア太平洋研究センター
- 林武他, 2011, 『研究ノート軍機保護法の制定過程と問題点』, 『防衛研究所紀要』第14卷 第1号, 東京: 防衛省防衛研究所
- 防衛廳防衛研究所戰史室, 1969, 『戰史叢書 關東軍(1)―對ノ戦備・ノモンハン事件』, 東京: 朝雲新聞社
- 東亞問題研究會, 1938, 『蒙古要覽』, 東京: 三省堂
- 寺山恭輔, 2017, 『スターリンとモンゴル 1931-1946』, 東京: みすず書房
- マンダフ・アリウンサイハン, 2005, 『滿州里會議に關する一考察』, 『一橋論叢』第134卷 第2号, 東京: 日本評論社
- 柳澤遊, 2004, 『1940年代初頭大連日本人個人經營者の経歴について』, 『經濟學研究』第70卷 第4・5合併号, 福岡: 九州大學經濟學會

투고일 : 2019년 04월 13일, 심사완료일 : 2019년 04월 23일, 게재확정일 : 2019년 04월 23일

■ Abstract ■

Border Disputes, Territorial Issues and News Media :
From “Photos on Mongolia” in the Fuji Warehouse Stock
Photos of Prewar Asahi Sinbun

Kishi, Toshihiko (Kyoto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the so-called “the Fuji warehouse stock photos” of prewar Asahi Sinbun (1879), which the Osaka headquarters owned. This newspaper played an essential role in molding public opinion related views of Mongolia policies in the 1930s and 40s and to Japan’s continental policies. The photos analyzed in this study could be defined as “Photos on Mongolia”, which were mined from 70,000 Fuji warehouse data referring to information on the back of these photos along with the images presented in the photos themselves.

Among the “Photos on Mongolia,” most photos were related to the Battle of Rehe, the Operation Chahar, and the Battles of Khalkhin Gol. In total, these pictures primarily depicted conflicts or events rather than of customs and living accounts. The Asahi Shinbun provided Japanese readers with a visual images that connected “Mongol” to these disputes. Geopolitically, Asahi Shinbun revealed in “Mongol” a geopolitical interpretation whose focal point centered on border disputes with the Soviet Union, the People’s Republic of Mongolia, and the Republic of China.

Key Words: Asahi Shinbun, stock photo, inner Mongol, battle of Rehe, Operation Chahar, battles of Khalkhin Gol, spatiotemporal analysis